

	<h1>보 도 자 료</h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<p>1.11(월) 15:00부터 보도 가능</p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, 자산운용과			
책 임 자	【산업금융과】 최용호 과장(2156-9750) 【자산운용과】 안창국 과장(2150-9890)	담 당 자	【산업금융과】 윤동욱 사무관(2156-9671) 【자산운용과】 고선영 사무관(2156-9899)	
배 포 일	`16. 1. 11.(월) 15:00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4매

제 목 : 금융위원장, 기술금융 투자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

- 금융위원회는 2016년을 「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」로 삼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
-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펀드 1,000억원 조성
- “기업투자정보마당”을 오픈하여 3만개의 중소기업 정보를 투자기관에 제공

□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‘16.1.11.(월) 핵심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“기술금융 활성화”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

- 기술금융 투자 유치기업인 ‘(주)큐라켄’을 방문하여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

【현장방문 행사 개요】

- (방문기관) (주)큐라켄 ○ (일시) `16.1.11.(월) 14:00~17:00
-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장, 신한은행장, (주)큐라켄 관계자 등

【기술금융 지원 개요】

- ‘(주)큐라켄’은 ‘09.6월 설립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* 합성 기업으로 설비투자에 따른 재무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
- * 신약후보물질에 방사성 물질을 합성하여 체내추적 등을 실시할 때 사용
-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(파트너스제4호투자조합)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평가 기반 기반 투자 25억원 유치
- * 이크레더블의 TCB평가 결과 : 기술등급 T3
- 투자유치를 통해 연구소 확장이전 및 매출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는 은행권 대출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결과,

-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총 30.9조원의 자금이 신규 및 증액대출로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수 있었지만, 투자를 통한 기술금융 지원은 다소 미진한 면이 있었다”고 평가하고

* (`14.7.~`15.11월) 기술신용대출 평가액(누적) : 30.9조원 (잔액 58.4조원)

- “2016년을 「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」로 삼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힘

□ 간담회에 참석한 ‘(주)큐라켄’ 임직원들은 그동안 기술력을 이해하는 투자기관을 만나기 어려웠고, 재무실적 부족으로 자금확보도 곤란했으나

-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의 기술금융 투자를 통해 (주)큐라켄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자금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
- 앞으로도 투자기관들이 과거의 재무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

□ 이에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술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발언

- ① (창업단계) 1.25일부터 개시되는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*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

* 1.25일,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펀딩 제도 시행

- 투자 활성화의 인프라로서 온라인 기반의 “기업투자정보마당”을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 실시 전 오픈(1.20)하여

- 정책금융기관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한 우수 기술 기업 등 창업·중소기업 3만여개의 투자정보를 클라우드펀딩 투자자, 엔젤투자자,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에 제공

- 투자기관과 기업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어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② (사업화 단계)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한 기술금융 펀드의 조성 및 투자를 확대

○ '16년 중 미래성장동력 산업* 내 우수 기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펀드를 1,000억원 규모**로 조성하고

* (미래성장동력 산업) 지능형로봇, 착용형스마트기기, 스마트바이오 등 19대 분야

** 성장사다리펀드 350억원, 은행 등 금융기관 650억원 출자 예정

- '15년 중 조성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및 지식재산권 투자펀드의 투자를 '16년부터 본격화

* (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) TCB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4,510억원(5개 펀드) 규모로 조성 완료(조성 후 5년간 투자 집행)

** (지식재산권 투자펀드) 우수 지식재산권(IP) 보유기업 투자 및 IP 직접투자하는 펀드로서 2,060억원(3개 펀드) 규모로 조성 완료(조성 후 5년간 투자 집행)

③ (성장단계)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을 연간 20조원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(평가액 기준)하고,

* ('14년)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4.7조원(신규 및 증액대출) / 잔액 8.9조원
('15년)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26.2조원(신규 및 증액대출) / 잔액 49.5조원

- 올 하반기부터 은행 자체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하여 은행권 여신관행에 기술금융을 빠르게 정착

* '15.8월 발표한 「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」에 따라 '16.2월 중, 은행권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발표

④ (성숙단계)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코스닥·코넥스 시장 기능 개편을 통해

* (코스닥 기술특례상장) '05~'14년 연평균 1.5개 → '15년 12개

-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·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

□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서

○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